

문학과 기술이데올로기의 연관성

구 모 룡

가. 미래 위의 인간

기술에 대하여 이유없이 공포심을 갖는 것은 잘못이지만 맹목적인 기술만능주의도 문제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의 원천이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는 기술에 그 어떤 본질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기술에 관한 본질주의적 접근은 모든 본질주의가 그러하듯 무의미하다. 가령 기술은 자연과 인간에 대해 억압적이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그 어떤 본질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과연 역사적으로 모든 시기에 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억압적이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의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본질로 환원되는 기술은 없으며 또한 역사적인 문맥에 따라 그 의의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역사적으로 기술이 인간해방의 도구였다는 이야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¹⁾ 인간이 자연의 지배로부터 놓여나고 주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데 기술의 공로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사를 기술의 혁명사로 보는 관점이 가능한 것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삶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술혁명과 관련하여 인류사는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디지털 혁명까지 여섯 단계를 거쳤은 것으로 이해된다.²⁾ 인류의 탄생-농업과 정착생활-도시국가 형성-사상 혁명-산업 혁명-디지털 혁명. 이 가운데 4혁명인 사상 혁명을 제외한 모든 단계가 기술 발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류사를 기술과 인간의 공진화(共進化)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기술이 왜 문제인가? 인간과 기술이 함께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 가고 있는 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군다나 현대의 기술은 과거의 모든 기술보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1) 기술이 인간 해방의 과정이라는 것은 기술 발달 과정에 잘 나타난다. 우선 손과 다리의 기능이 운동장치로 대체되었고, 다음으로 신체의 기능이 에너지 장치, 눈과 귀와 피부 등은 감각 장치, 뇌의 기능은 중앙 제어 장치 등의 순으로 바뀌었다.

2) 이광형, 『디지털 문화시대』, 『디지털시대의 문화예술』(문학과지성사, 1999), pp. 25-26.

다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고 확고한 과학적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신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확신에서 유발된다. 과학의 정형성에 기초한 현대의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달리 보다 많은 전제와 조건에 구속되어 있고 이 때문에 훨씬 더 비자발적이고 비독립적이다. 현대의 기술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 유토피아는 안이한 낙관주의에 불과하다. 인간이 기술의 진보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 동안 유지되어온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는 균형을 잃었다.

여기서 문제의 원천이 기술과 인간이 유지해온 균형의 상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체에 있어 질병이 균형 상실에 기인하듯이 인간과 기술의 균형 상실은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인간성의 변화는 물론이고 생태학적 위기는 더욱 커지게 된다. 과연 지금까지의 인간은 모래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사라질 것이고 암울하고 황량한 사막과 같이 변한 세계에서 전혀 다른 <몸>으로 새로이 태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가 안고 있는 위기들의 근원이 기술에 연유한다는 생각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나. 기술의 이데올로기

기술이 문제라면 그것은 오늘날의 기술이 그렇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이 내포한 도구적 행위의 척도가 다른 삶의 영역에 급속도로 빨리 침투하게 된다. 기술에 의한 효과적인 자연 지배의 방법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향한 도구를 제공하게 마련이다. 현대의 모든 지배는 기술에 의해 매개될 뿐만 아니라 기술로써 영속화되고 확장된다. 기술은 모든 문화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³⁾ 그러나 사람들은 기술에 의한 지배를 간과하거나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부자유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에 안락함을 주고 생산의 증대를 위한 기술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술적 합리성은 지배의 정당성과 쉽게 결합한다.

기술과 지배의 독특한 결합, 합리성과 억압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사회를 분석한 것은 마르쿠제이다. 그는 자연은 과학적으로 파악되고 지배됨으로써 기술적인 생산과 파괴의 장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생산과 파괴의 장치는 개인의 생활을 보존하고 개선시키는 동시에 개인을 장치라는 주인에게 굴복시킨다고 말한다. 확실히 그는 기술에 관한 비관주의여서 그것의 해방

3) 위르겐 하버마스(하석용·이유선역),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이성과 현실사, 1991), p. 59.

적 가능성을 의심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과 목적 합리적 행위 구조 사이에 내재적 연관이 있다는 아놀드 게엘렌의 견해를 들어 하버마스가 기술에 의한 인간 해방을 지적한 것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⁴⁾ 사실 현존의 기술을 다 버리고 질적으로 다른 기술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술의 인간화라든가, 자연을 위한 기술이라는 테제를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이지만 그리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마르크제도 인간 해방 다음에 자연 해방을 두는 단계론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가 러다이트운동가나 생태근본주의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처럼 현실과의 구체를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기술의 합리적인 수행을 강조한다. 이는 현실적이거나 그의 <미완의 근대성> 테제처럼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⁵⁾

오늘날의 기술은 자본이 움직이는 거대 시스템의 존재를 빠뜨리고 설명될 수 없다. 기술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변화되고 확장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술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매우 <기술적>이라는 사실이다. 기술의 문제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모든 영역에 걸쳐 기술적 효율성이 강제된다.⁶⁾ 자본과 결합한 기술은 효율성의 명분으로, 모든 개인들을 소비자의 지위로 전락시키고, 다양한 문화전통을 획일화하며, 생명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하나의 거대하고 집중화된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서 기술과 시스템의 선후 관계는 문제가 되지 못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피드백이라는 등질적인 기술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세계 체제는 전지구적인 기술 시스템에 다르지 않을 것인데, 이는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이 기술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⁷⁾.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는 곧 기술의 세계화이다. 이 점은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화된 경제를 위해 기술이 관심분야가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손쉽게 알 수 있다. (1)고속통신-인공위성, 전화망, 텔레비전, 라디오 (2)정보기술-고속 컴퓨터, 정보고속도로 (3)에너지-대규모의 중앙집중식 발전소, 석유제품, 송유관 (4)산업화된 농업-화학집약, 단작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생명공학 (5)전문화 교육-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훈련하기 위한 하부구조. 이와 같은 예들은 경제의 세계화가 기술의 세계화임을 증명하기에 족하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체제의 기술적 효율성이 파생

4) 같은 책, pp. 65-66.

5) 하버마스의 <미완의 근대성> 테제에는 제국주의를 분식하려는 것이 아닌가는 혐의가 없지 않다. 아울러 기술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수행하자는 제안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

6) 김종철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기술이데올로기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물론이고 인문학까지도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명의 논리』,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삼인, 1999), pp. 113-114.

7) 지구촌이라는 말을 고안한 것은 기술주의자이지 생태주의자가 아니다.

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1)민주주의의 쇠퇴 (2)전지구적 의존 (3)국가 자주권의 상실 (4)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회소성 (5)도시화 (6)위협받는 식량공급 (7)빈부격차의 심화 (8)환경 파괴 (9)문화 다양성의 상실⁸⁾. 그러나 사람들은 세계체제가 당연한 것이며 세계화는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대사회를 기술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일상생활 전부가 기술에 의해 <호출>interpellation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기술이 호출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기술은 너무나 당연한 도구이므로 기술의 주체는 당연히 인간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시함에 문제가 있다. 기술은 언어나 제도 이상의 이데올로기이다. 어떤 의미에서 기술이 인간 개체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호출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⁹⁾ 기술 의존에 일정한 한도를 넘었기에 인간이 스스로 기술로부터 분리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서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이데올로기 가운데 이데올로기이며 나아가서 하나의 신앙의 체계에 가깝다.

다. 기술사회와 인간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동안 그 이유와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다. 가스렌지, 냉장고, TV, 세탁기, 자동차, 전화 등은 일상생활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의 기원이나 작동원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확실히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는 분명히 관심의 암묵적인 결핍을 요구한다.¹⁰⁾ 일상 안에서 조우되는 몇몇 기술의 결합은 기술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기보다 완전한 기술에 대한 낙관으로 대체된다. 기술이 문제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일상이 크게 파괴하는 경험에 직면할 때뿐이다. 그렇지만 인공물이 붕괴하거나 파괴되는 재해에 직면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실패한 기술>이지 기술 그 자체는 아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기술의 진화를 당연시하며 그것을 기술만의 문제로 분리시킨다.¹¹⁾

8)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방향의 전환-전지구적 의존에서 지역적 상호의존으로」, 『녹색평론』, 1999년 7-8월호, PP. 98-104.

9) 장차 사이보그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기술은 단순한 호출이기보다 완벽한 지배가 될 것이다. 고병권, 「신체는 어떻게 자신을 변이시켰는가-공각기동대에 대한 철학적 감상」 참조.

10) 위비 바이커/존 로(송성수역), 「기술은 지금과 다를 수도 있다」,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새물결, 1999), p. 20.

11) 이러한 분리주의는 각 영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명분을 면서 현상을 권력관계를 유지하게 만든다. 이는 전체적인 시각이 형성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내재한 모순에 대한 비판을 봉쇄한

그러나 우리가 겪은 <삼풍백화점>과 <시랜드>나 지진으로 무너진 <이스탄불>은 기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기술의 문제를 반성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새로운 기술로써 실패한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과 인간의 만남을 <자연>(바르트의 의미에서)으로 만드는 기술이데올로기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현대의 기술은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형성하고, 건강, 소비 방식, 의사 소통 방식, 타인을 통제하는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은 현대를 움직이는 거대권력은 물론이고 사회에 편만한 미시권력과 상관성을 가진다. 우리의 일상이 무수한 기술들로 직조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기술들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 기술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를 구성한다는 생각의 배후를 직시하거나 기술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 자유주의자들은 기술의 확장과 경제의 성장이 결국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테크노피아는 일반인의 의식 속에 환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 속에서 진정 잘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빠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을 <잘 삶>이라는 명제와 접합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이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당연히 인간의 미래와 직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접게 하고 기술선택의 사회적 결과에 대해 주목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술의 배후에 있는 자본의 조종을 살피거나 근대적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거나 더욱 인간적이고 유기체적인 기술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¹³⁾ 물론 모든 문제를 기술의 탓으로 돌리는 슈팽글러류(類)의 반기술주의는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칫 문학과 기술의 관계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반기술주의로 흐를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문학이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의 구호가 될 수 없으며 이보다 기술과 더불어 궁극적인 <잘 삶>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기술은 인간이 원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삶든 기술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체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구체를 덮고서 무조건 기술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기술비판이 해묵은 문명비판에 그칠 수 없다.

다. 그런데 인문사회 영역에서 이러한 분리주의가 극복되었다고 한다면, 자연과학과 공학 영역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데 이것이 문제이다.

12) 하이데거에 의하면 기술은 단순한 제작이 아니며 게슈탈로서 이미 무겁고 강압적인, 얼핏 보기에도 우리를 완전히 위압하는 듯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존재 및 존재와 인간의 연관성을 은폐시키고 가로막는다. A. 바루치(양우석역), 『대안적 삶의 형식』(서광사, 1996), pp. 48-50.

13) 랜던 워너, 「기술철학자의 사회구성주의 비판, 『과학 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p. 306.

아르노 바루치는 기술을 <가작성(可작성) Machbarkeit>이라는 말로 설명한다.¹⁴⁾ 낯선 이 말 속에는 <만들다>와 <폭력적 힘>의 의미가 공존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편으로 긍정적인 계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 계기이다. 전자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는 것도 이상적인 가능성으로 만드는 유토피아 의식으로 나타나며 후자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는 것도 강제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폭력적 요구를 내포한다. 바루치에 의하면 기술은 이러한 가작성을 단적으로 대표하는 영역으로 근대 문명에서 유용성과 폭력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문제는 이러한 가작성이 오늘에 이르러 많은 한계의 경험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이 자연이라는 존재의 기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한계 경험이다. 여기서 기로에 선 인간을 상정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은 기술과 경제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의 존재 및 경험의 영역에 머무르려 하는가 아니면 떠나려 하는가.”¹⁵⁾ 사실 현대 기술의 세분화된 발전이나 유전공학의 발달이 자연과 인간을 철저히 변형시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 의지대로 지금의 인간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떠한 형식의 삶이 잘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바루치는 묻는다: “인간은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그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가?”

라. 문학, 기술사회의 소음

문학이 죽어야 한다든가 문학이 죽었다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기술의 변화를 그 논거로 든다. 디지털 혁명 이후의 문학은 산업혁명이나 그 이전의 문학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술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결여하고 있기에 이러한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할 것도 없이 문학과 기술의 관계도 밀접하다. 인쇄기술의 발달없이 문학의 발달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대두가 기존의 문학에 대한 죽음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기술이데올로기의 강제와 기술결정론의 오류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돌이켜 보면, 문학과 출판은 진리, 상상력, 언어, 역사와 같은 그런 문제에 관한 이전 시대의 휴머니즘적인 전제들을 구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단지 옛날 것에 대한 새로운 행동 방식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문자가 아닌 시각적 이미지, 숨겨진

14) A. 바루치(양우석역), 앞의 책, pp. 13-14.

15) 같은 책, p. 44.

복잡한 의미가 아닌 단순하고 드러난 의미,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 구조가 아닌 에피소드, 진실이 아닌 연기. 독자가 시청자로 변하고 읽기 기술이 사라져가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세상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텔레비전과 공존할 수 있는 문학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왔기는 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학에 기반한 언어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¹⁶⁾

이처럼 문학-인쇄기술/텔레비전-전자기술을 단순한 대체의 관계로 보는 것은 기술결정론에 의한 것이다. 또한 문학의 독자가 텔레비전의 시청자로 바뀔 것이라고 보는 데는 기술의 발전을 당연한 진화로 생각하는 기술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를 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로 확장해 본다면 어떠한가. 음악과 회화와 춤의 경우는 어떠한가. 왜 문학의 죽음만 선언되고 음악의 죽음, 회화의 죽음, 춤의 죽음은 선언되지 않는가. 질료와 창작 방식에 따른다면 문학과 음악과 회화와 춤은 같은 층위에 있다. 그렇다면 다른 매체의 등장으로 문학만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문학인가? 여기서 우리는 기술이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문학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전근대의 종교를 근대의 문학이 대신했다면 현대에 와서 이러한 역할을 기술(또는 기술문화)이 대신하려는 것이다. 즉 기술에 의한 매체 변동과 문화적 헤게모니가 결합된다. 매체가 메시지라면 그 매체는 곧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처음부터 기술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역사에서 보증된다. 루이스 면포드에 의하면¹⁷⁾ 인간이 처음 숭배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주술적 힘으로서 상징이다. 언어였든 이미지였든 상징은 인간이 인간됨, 즉 순전히 본능적인 동물의 지능을 뛰어넘는 탈출의 조건이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간은 기술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정반대의 상태가 편만하게 되었다. 복제기술에 의해 상징은 더럽혀졌고 그에 내재할만한 의미들은 회석되었다. 오히려 기술적인 도구는 과대평가된다. 계속해서 면포드는 이렇게 말한다: “기계가 우리들 마술의 주요한 원천이 되었고, 그것이 하느님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모든 상징의 가치를 저평가해온 시대가 기계 자체를 보편적인 상징으로, 숭배되어야 할 하느님으로 바뀌버렸다.”¹⁸⁾

그렇다면 슈팽글러의 비관적 전망처럼 예술의 시대는 끝나고 다른 모든 인간적 가치들로부터 단절된 기술의 시대가 도래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면포드는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하고 있다.

16) 앨빈 커넨(최인자역), 『문학의 죽음』(문학동네, 1999), pp. 206-207.

17) 루이스 면포드(김문환역), 『예술과 기술』(민음사, 1999), p.165.

18) 같은 책, p. 166.

삶의 모든 표현 양태 속에, 무엇보다도 인간 유기체 자체 안에, 유기적이고 창조적인 것,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것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어느 일면만을 과장하고 다른 면을 무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문명이 사정없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잘못된 신념의 철학적 기초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평형 상태를 무너지도록 내버려두고, 또 예술·도덕·자유를 촉진시키는 고도의 기능들만이 꽃필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 균형상태를 적극적으로 되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균형의 실패는 어떠한 발전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또 내가 앞에서 지적해 왔듯이, 때로는 내면 생활의 과도한 발달, 상징의 과도한 증가, 주관성의 과도한 자기 주장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주로 우리가 기계에 대해 베풀어 온 무제한적인 허용의 결과이다.¹⁹⁾

이와 같이 멨포드는 생물학적 원리인 <역동적 균형상태>라는 테제에 기대어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그의 테제는 당위적 명제에 속한다. 유기체처럼 자율적으로 균형상태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테제는 상당한 부분 근대성 비판을 담고 있다. 근대는 기계에 과도한 허용을 베풀 나머지 삶을 질곡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의하며 근대의 기술은 인간을 기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간형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기계화된 세계에서 주중 내내 조립 라인에 매달려 일할 수밖에 없는 인간 로봇들은 토요일 밤이면 반항자로 돌변하는 데 여기서 새로운 세계 인간의 낭만주의가 나타난다. 따라서 그는 기계주의와 낭만주의를 동일한 기원에서 찾는다: “기계주의는 추상적 상징, 보편적 법칙, 예측가능한 사건을 꿈꾸며, 낭만주의는 미지의 대양, 인도의 보물, 젊은 샘을 꿈꾼다. 개척자는 자연자원을 겨냥하고, 기술자는 기계가 창조한 부를 노린다.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다른 하나는 원자의 세계를 탐험한다. 두 가지 탐험양식 어느 것에서나 처음부터 도전적인 자만과 악마적인 광기가 들어 있었다.”²⁰⁾ 이러한 지적에서 멨포드의 근대성 비판은 미적 근대성 비판으로 발전한다.

흔히 일반적인 근대성에 저항한 미적 근대성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미적 근대성에 의한 저항이 궁극적인 창조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근대의 기술이테올로기에 대한 미학적 저항에서 근대의 파괴적 속성을 그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²¹⁾ 물론 근대 미학이 처음부터 기술에 대한 부정적 모방이었던 것

19) 같은 책, p. 173.

20) 그로버 폴리, 「루이스 멨포드-대지의 철학자」, 『녹색평론』 1999년 3-4월호, p. 61.

21) 여기서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한 멨포드의 언급은 근대예술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벽화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회화들 중 하나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그러나 그의 원숙한 솜씨로부터 생겨난 참신한 상징들은, 주로 새로운 통합의 싹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상처들과 흉터들을 보여주고 있다. 때때로 그 정서는 게르니카 벽화를 위한 예비적인 소묘에서처럼 칼로 베인 듯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은 아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기술 연관을 경시하지 않으면서 자기 회귀의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예술로 하여금 자기 부정을 거듭하게 한다.

자학적인 근대미학의 대두와 기술의 발달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술의 발달은 내면적인 인간들을 죽음으로 내친다. 자살이 순수의 증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과 기술의 역동적 균형이라는 테제는 탈근대 미학을 시사한다. 이것은 근대 미학을 하나의 실패로 전제하면서 기술과 더불어 기술을 넘어서는 미학의 가능성을 찾는다. 달리 이것은 발터 벤야민의 비관주의와 정반대의 방향에서 예술의 아우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벤야민의 아우라 상실에 관한 테제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예술의 성급한 항복선언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것은 기술사회에서의 예술 소외를 공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벤야민이 말한 아우라는 처음부터 없었거나 오히려 복제시대의 산물이다. 복제시대와 함께 그 때까지의 예술에 아우라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이렇게 본다면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도 미적 근대성의 한 양상에 불과하다. 즉 기술에 의한 자연과 인간 지배와 예술의 소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아우라를 창출하는 기술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그야말로 메모드의 균형상태에 근접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기술을 넘어선 것이기에 <예술적> 기술이라 해도 될 것인데, 이는 기술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이데올로기 비판이다. 메모드의 말처럼 잘못된 신념 체계가 세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러한 체계를 해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일은 기술의 효율성에 내재한 비이성적 광기를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술, 인간과 자연, 기술과 자연, 기술과 예술이 상호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문화정치학을 개발하는 것과 연관된다.

기술 사회는 문학을 불필요한 <소음>noise으로 여긴다. 기술사회에서 소음은 범죄와 죄악에 다름없다. 기술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자연이 그러하듯 온갖 사물들이 공생하는 사회를 꿈꾼다면 문학은 소음이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하다. 기술과 기술사회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당연한 미래인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고쳐가야만 하는 잘못된 방향인가. 후자의 입장에 설 때, 생명적인 문학과 예술이 옹호될 것이고 전자의 입장이라면 문학의 죽

서, 그 다음 단계로는 광기나 자살밖에는 남은 것이 없지 않았나 하고 염려스러워진다. 폭력과 허무주의, 즉 인간성의 말살 바로 그것이야말로, 현대 예술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순수한 계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기술에 의한 비인간화에 대해 평형추 구실을 하지 못한다. 메모드, 앞의 책, p. 14.

22) 가라타니 고진(박유하역), 『미와 지배』, 『내일을 여는 작가』 1997년 9-10월호, p.183.

음과 기계적 예술이 주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마. 기술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문학에서 기술이데올로기를 찾기란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일이다. 한편으로 이론을 확장한 공로로 평가될 수도 있을 90년대 문학에서 정착된 것은 문학이데올로기이고 기술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부각되었다.²³⁾ 물론 여기서 니체가 말한 <말인(末人)의 지평>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예술과 문학을 통한 희망 찾기는 끝났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술에 있어서는 인간이 기술 연관 속에 있으면서도, 이를 유지하면서 자기에 회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²⁴⁾

그 동안 전근대 사회에서 예술과 기술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다. 근대 이후 예술이 기술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기술을 부정함으로써 기술을 닮는 부정적 모방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 이후 예술은 기술을 부정할 아무런 여력도 갖지 못했다.²⁵⁾ 지금 예술은 기술의 지배 하에서 기술의 제단에 경배한다. 여기에 기술에 내재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술은 예술은 물론 인간까지 변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문학과 예술은 기로에 서 있다. 기술에 종속된 신인간을 선택할 것인가, 기술을 극복한 신생을 찾을 것인가. 간단치 않은 물음은 계속될 것이다. 일이 이리함에 선부른 문학의 죽음 선언이 금물임과 동시에 기술을 통한 문학의 재생산도 재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술과의 연관을 상실한 관념적인 자연 추구가 찬양될 이유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이 기술의 인간 지배이지 기술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근대는 더 많은 것을 전근대에서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전근대야말로 잃어버린 균형과 조화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근대와 전근대는 변증법적인 만남으로 새롭게 <형성적인 서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23) 구모룡, 『문학과 근대성의 경험』(좋은날, 1988), pp. 343-349. 「시의 적이 된시」, 『현대시』 1999년 5월호. 참조.

24) 今道友信(백기수역), 『미론』(정음사, 1977), p. 201.

25) 물론 이러한 징후는 20세기초부터 진행된다. 야방가르드의 종말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참고문헌

- A. 바루치(양우석역), 『대안적 삶의 형식』, 서광사, 1996.
- 가라타니 고진(박유하역), 「미와 지배」, 『내일을 여는 작가』 1997년 9-10월호
- 고병권, 「신체는 어떻게 자신을 변이시켰는가-공각기동대에 대한 철학적 감상」
- 구모룡, 『문학과 근대성의 경험』, 좋은날, 1988
- 그로버 폴리, 「루이스 멀포드-대지의 철학자」, 『녹색평론』 1999년 3-4월호
- 송道友信(백기수역), 『미론』, 정음사, 1977
-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1999
- 루이스 멀포드(김문환역), 『예술과 기술』, 민음사, 1999
- 앨빈 커넨(최인자역), 『문학의 죽음』, 문학동네, 1999
- 위르겐 하버마스(하석용·이유선역),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이성과 현실사, 1991
- 위비 바이커/존 로(송성수역),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새물결, 1999
- 이광형, 「디지털 문화시대」, 『디지털시대의 문화예술』, 문학과지성사, 1999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방향의 전환-전지구적 의존에서 지역적 상호의존으로」, 『녹색평론』, 1999년 7-8월호

■ Abstract

Interaction between Literature and Ideology

Gu, Mo-Ryong

Interrelations between literature and technology start with the fact that development of literature corresponds to that of printing. Given an example of printing, it cannot be said that literature has followed an ideology of technology. Printing did not control development in literature, but supported it. However, another form of technology, new media, tried to deconstruct and subordinate literature based on printing. New media switches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literature and technology to the predominance of technology. Taking an ideology of technology for granted to declare death in literature leads to the death of human beings. Radical changes in human nature combined with the destruction of old cultural patterns cast an ominous shadow over the future of human beings. Therefore, in the age of new media, we still need the balance of technology and human beings, technology and literature, and technology and art.